

국내경기는 2개월 연속 악화

~ 주가가 사상최고치를 갱신한 한편 절약 지향 의식 고조로 개인소비관련이 하락세 ~

(조사대상 2만 7,443사, 유효회답 1만 1,267사, 회답율 41.1%,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의 포인트

- 2024년 2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3포인트 감소한 43.9로 2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국내경기는 주식시세 등 금융시장이 호재였으나 소비자의 절약 지향 의식 고조 및 자동차의 생산·출하정지 등이 악재가 되어 소폭이지만 악화경향이 계속되었다. 향후의 국내경기는 악재가 집중되어 하향하지만 여름 이후부터 임금인상 등 개인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 물가 급등에 따른 소비자의 절약 지향 의식 고조 및 제조업 정체 등의 원인으로 10개 업제 중 6개 업제에서 악화되었다. 지역별로는 10개 지역 중 7개 지역이 악화, 3개 지역이 개선되었다. 노토반도지진의 영향이 호쿠리쿠 지방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나타난 한편 악천후 및 자동차 생산정체 등도 하락세 요인이 되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중소기업」「소규모기업」이 2개월 연속 모두 소폭 악화되었다.
- 개인소비 DI는 43.1로 2개월 연속 침체하여 기업으로부터도 소비자의 저조한 소비행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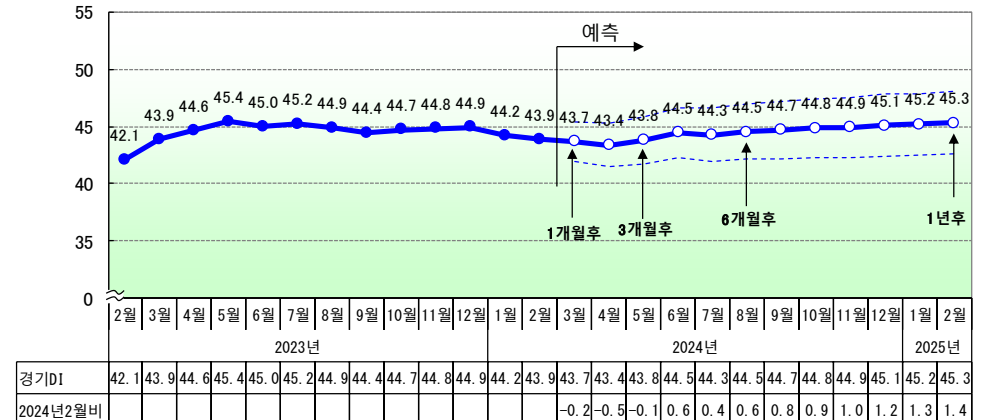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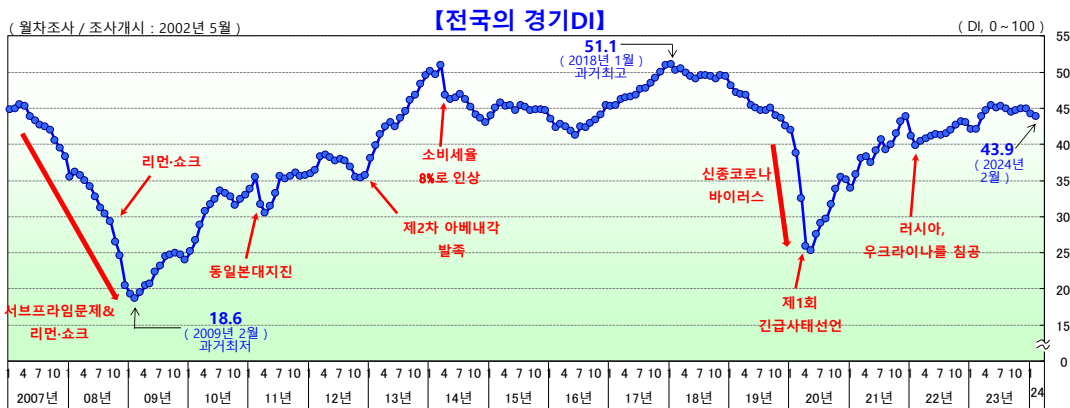
< 2024년 2월의 동향 : 소폭 악화 >

2024년 2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3포인트 감소한 43.9로 2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국내경기는 주식시세 등 금융시장이 호재였으나 소비자의 절약 지향 의식 고조 및 자동차의 생산·출하정지 등이 악재가 되어 소폭이지만 악화경향이 계속되었다

2월은 닛케이평균주가가 34년 2개월 만에 사상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금융시장에 있어 호재가 많은 상황이 계속되었다. 게다가 인바운드 수요 및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 수요 등이 경기를 지탱하였다. 한편 노토반도지진의 영향이 호쿠리쿠 지방을 중심으로 계속된 한편 물가고에 따른 절약 지향 의식 고조에 난동(暖冬)으로 인한 계절수요 부진이 더해졌다. 게다가 자동차의 생산·출하정지 등은 제조부터 소매까지 관련된 업종의 하락세 요인이 되었다.

< 향후의 전망 : 여름 이후 회복 >

향후는 고용정세의 팽박을 배경으로 지속적인 임금인상이나 상여, 감세 등으로 인한 개인소비의 행방이 열쇠가 될 것이다. 또한 기업 업적 개선이 진행되는 가운데 호조인 인바운드 수요 및 설비투자 확대가 전망되는 한편 생성형 AI의 발전 등은 플러스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인력부족 및 전문가 부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2024년 문제 및 시간의 노동에 대한 대응, 물가 및 금리 동향 등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일부 자동차 생산업체의 생산 정지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 후의 대면형서비스의 수요 보급, 해외 경제 동향도 우려 요소가 될 것이다. 향후의 국내경기는 악재가 집중되어 하향하지만 여름 이후부터 임금인상 등 개인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예측 DI는 ARIMA 모델과 구조방정식 모델의 결과를 Forecast Combination 수법으로 산출. 점선은 예측치의 폭(예측구간)을 나타내고 있다.